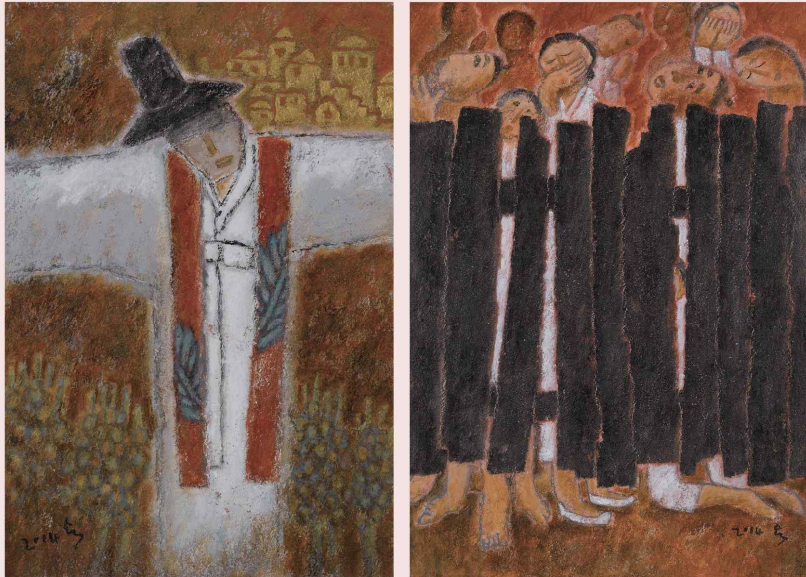


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-경축 이동(9월 17일)
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
 (루카 9,23-26)



순교자들

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,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,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”(루카 9,23-24)

어지신 주교 신부 웃으며 칼을 받고 겨레의 선열들이 기꺼이 쓰러졌다
 피꽃을 몸에 피워 천당에 올랐어라 찰나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었어라
 (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 중에서)
 그림 김옥순 수녀 | 성바오로딸수도회(출처: 서울주보, 2014. 9. 21.)

시작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285번 “103위 순교 성인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 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

주님 초대하기

| 진행자 | :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.
 (초대기도가 힘들 때,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.)
 - 주님!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.
 - 주님,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.

하느님 말씀

| 진행자 | :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.

✠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.
 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,
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
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,
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
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
 있느냐?
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,
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
 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.”
 주님의 말씀입니다.

| 진행자 | :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.
 | 진행자 | :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.



† 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,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”(루카 9,23)

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?

† “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”(루카 9,26)

하느님의 이름을 우리는 당당히 드러내고 있습니까?

| 진행자 | :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.

한걸음 더 나아가기

| 진행자 | :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.
(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)

† 2009년 겨울 우리 교회의 어른이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. 그분은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이십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으로 우리 사회를 이끈 분이시기도 합니다. 그분이 돌아가시고 빈소가 차려진 명동성당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. 그래서 그 당시 명동의 기적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. 추운 날씨임에도 그분이 가시는 길을 마지막이라도 보고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단 몇 초 그분의 주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왔습니다. 몇 초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달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? 바로 그분의 삶이 이 이유를 말해줍니다. 결국 하느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분의 삶이 그분을 드높인 것입니다. 사람은 아무나 기억하지 않습니다. 사람은 아무에게나 눈물 흘려주지 않습니다. 기억하고 눈물 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

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도 그분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.

생명의 말씀 정하기

| 진행자 | :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.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?

말씀 살기

| 진행자 | :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.
(나눔 후)

| 진행자 | :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‘생명의 말씀’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.

마침기도

| 진행자 | :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.

마침성가

| 진행자 | : 가톨릭 성가 285번 “103위 순교 성인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.
(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.)